

건강백세



절망은 없다 ② (끝)

위(胃) ②
복부(腹部)가 노출(露出)되면 온도가 떨어져 소화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요즈음 배꼽티가 유행인데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외에 과격한 운동 등으로 혈액이 다른곳으로 많이 이동해버려 위부분의 혈액 부족으로 인한 위액분비저하와 자율적 동작기능이 떨어져 거되어 소위 '제'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서양의화

면서 식사량이 기본적으로 건강에 유리함은 더할나위 없다. 위벽은 주름조각으로 되어 있어 상당량을 먹어도 수축할 수 있게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과식을 자주 반복하면 확장된 위조직이 원상태 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늘어지게 되어 위무력(胃無力)이나 위하수(胃下垂)를 불러오게 되므로 인위적 병변까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분별없는

과식·소화제 남용 위무력증 유발

위염등 긴장현상 장기화 '위레앙'



소화제나 위를 자극시키는 강한 알칼리류나 독주(毒酒) 등의 과용은 이런 증상들을 더욱 악화시켜 증인과 더불어 절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참고로 위에 관계된 약은 무조건 소화제만 사용한다든 말 일이 아니다.

식이(食滯)가 되었을 때는 가법계 위를 자극하면서 위가 활발한 작동을 하게 하는 약이 필요하며 위산부족 즉 저산증(低酸症)에는 효소가 함유된 소화제가 필요할 것이며 위액에 상한 과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산을 감소 내지는 조정 시키면서 위의 긴장요인을 해소시키는 약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학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본원리가 같아야 한다. 단지 약제의 선택이나 근본적 치료를 위해 기본장기의 치료에 임하는 이론만이 다르다는 점이다.

윤을상 (한의학 박사)

“지 금도 아내가 미운가요. 미움이 지나쳐 보고싶겠지요. 부부사이가 멀다기도 다 그런것이 아닐까. 절망속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대강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 것같은데 대답자는 조금씩 슬이 깨는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처럼 괴로울 때 의논할 친구나 이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아빠가 매일 술만 먹고 죽을만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믿는 종교가 있으신지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 가끔 절에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부인이 믿고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죽음을 택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감정을 억제하고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무서기모니불' '관세음보살'을 외워 보세요. 미운 감정도 원망하는 마음도 죽고 싶은 마음도 잠시 뒤로 미루고 부처님을 찾아보세요.”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모든것이 해결될니까?”

“네! 확실합니다. 우선 믿기전에 관세음보살을 자주 외워 보세요. 마음이 가라 있으면서 길이 보일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자주 자주 불러 보시고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다시

절망 주세요. 지금 힘겨움을 느끼시겠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과 더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누구를 찾으면 되나요?”

“저희 상담원은 이름을 밝히지 않게 되어있어요. 다시 전화 하시면 10번 상담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꼭 다시 전화 주세요.”

그는 심상이 곱고 여린 사람처럼 느껴졌다. 힘겨운 목소리로 관세음보살을 외워 보겠노라고, 다시 전화가 없으면 죽었을까라고, 말도 끝도 없이 전화를 걸어버렸다.

그로부터 나는 희망과 절망 속을 오가면서 그의 전화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 생활을 찾았을까.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밭서 이슬을 떠나 버렸을까?

공공증은 절망감으로 절망감은 또 깊은 슬픔으로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았다. 그러나 그 흐느끼는 듯한 처절한 목소리는 다시 나를 찾지 않았다. '인간이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졌을 뿐'이라고 한 어느 철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그냥 던져진 존재일 뿐이려면 그 날자 내담자는 또 나는 아니 모든 사람은 자기의 존재까지 자기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한단 말



'통일기원' 화엄사 10만법등
단종이 봉개물든 지리산 화엄사(주지 종일)에서 신심과 정성을 담은 10만법등이 점등돼 화엄의 연희정세계가 펼쳐졌다. 화엄사 시리산전경화엄법회는 직년에 55종법등 발공된 부처님 진신 시리 22과를 재봉인기 위해 정진해온 불사에 1년에 동안 30여만명 친견에 8천5백여명의 법등불사 접수 불자들의 높은 동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이다. 이날 참가한 민어 불자들은 석가모니불을 정근하며 민족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발원했다. (화엄사=김원우 기자)

인가? 끝없는 슬픔과 회의와 고통으로 방황하게

나는 합장을 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상담실을 나오면서 바라본 가을 하늘은 더 없이 맑고 푸르었다. 우리는 세월을 불의 흐름에 비유한다. 흘러가는 것이 세월 뿐인가. 우리의 꿈 우리의 삶도 흘러간다. 누구나 그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다. 그 흐름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인젠가는 우리를 흘러가게 한다.

무한한 시간속에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면 이 존재의 유한성을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기쁨 뒤에 슬픔이 슬픔 뒤에 기쁨이 있음은 이 사바세계의 어쩔수없는 역설(逆說)이다. 수많은 삶의 역설을 헤쳐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에 대한 우리자신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이 '사랑'은 곧 자비이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비행'의 가르침이 아닐까? 나의 조그마한 노력 나의 보잘것 없는 힘과 불사를 고마워하는 사랑도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에게 한없이 고맙고 기쁜 일이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또 오늘이 우리를 슬프게하여도 절망은 없을 것이다.

조순자
(대구 자비전화 교육부장)

“작년 가을 싱가포르에서 전화가 왔다 2년전 자살을 생각하던 상담자였다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합장을...”



그림 · 이준석

한 그 남자의 전화는 기다려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월이 약이 되었던지 그 남자의 기억도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져가서 꽃피고 낙엽 흩날리기를 두번, 작년 바로 이맘 때 싱가포르에서 한통의 전화가 나를 찾았다. 바로 그 자살 직전에 있던 내담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활차고 밝았다. 해외 건설업체의 노무자로 취업한 그는 그간의 살아온 경위와 다시 만난 아내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며 무엇보다 고맙다는 감사의 말과 부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로서 글을 맺었다.

나는 나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환호하였다. 이런 전화를 받는다. 아, 이것이 전화 상담원의 보람이 아닌가. 부처님, 보살님 감사합니다.

한 그 남자의 전화는 기다려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그림 · 심민섭

로 지냈다. 나는 그와 친분을 맺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노트와 도시락을 가지고 가시와기 옆에 섰다. “저 잠깐만, 강의 때 잘 모르는 것을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나네가 나한테 왜 말을 걸어오는지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어. 명심거리 친구가 되지는 것도 좋지만, 자네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대시하고 있어.” 우리는 종종 운동장을 함께 거닐었다. 가시와기는 종종 내 앞에서 특종적으로 연출해 보인 인생에서는 산다는 것과 과밀한다는 것이 모두 동일한 의미였다. 그 인생에서는 자연스러움도, 금각사와 같은 아름다움도 일종의 고풍스런 경련에 지나지 않았다.

1996 문화의해

해외불교문화

다이제스트

금각사 ②

미사마 유키오 작

그후 나는 아버지의 죽음의 세계와 꿈은이들의 삶의 세계가 서로 정점을 매개해트 해서 연결된 시절에 금각사를 다시 방문했다. 몹시 놀랐게도 내 마음속에서 아름다움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 유언대로 금각사의 도제가 되었다. 그때 나는 묵도하면서 새파란 댕머리를 하고 있었다. 공기가 머리 속살에

찰박 달라붙어있던 것 같은 느낌, 그것은 내 머리 속의 생각이 않고 상처받기 쉬운 민감한 피부 한 겨울을 사이에 두고 바깥세계의 물결과 맞닿아 있는 것만 같은 위험하게 느껴지는 묘한 감각이었다.

전쟁은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 시절 조류가와를 만났다. 도쿄에서 온 조류가와는 항상 주위를 면밀히 관찰하고 날카롭게 추론하는 습성이 있었다. 연합군의 일본본토 공습이 임박해지면서 '드디어 금각사가 공습의 불길 속에서 타 없어질지도 모른다'란 생각이 머리에 떠오

르게 되자 금각사는 전에 없이 비극적인 아름다움이 더해 갔다.

조류가와는 이런 내 생각에 대해 "하지만 난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걸"이라고 말했다. 나는 놀랐다. 그의 말은 깨끗이 날카로운 것만 같았다.

“사는 것과 파멸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 아름다움도 일종의 경련일 뿐”

했다.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는 조류가와는 눈이 말려들어를 말차낸 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되는게 있다. 나라는 인간은 원래부터 이런 어두운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나의 관심은 오로지 마에 대한 것뿐이었다. 전쟁이 끝났다. 그것은 도제인 나에게 는 해방이 아니었다. 일상 속에 녹아 흡수

되어 있는 불교적인 시간의 부활에 지나지 않았다. 절에서의 일과는 패전 다음날 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힘든 일과를 보내며 나는 공경이 심해졌다. 공숙에서 이따금 몸 한귀퉁이에서 번갯불이 스쳐지나가듯 풍경은 시작하고 끝났다.

지혜의 빛 자비의 샘, 불교텔레비전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합시다

미래불교를 선도하는 불교텔레비전이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불자주식인약을 접수합니다. 불자 모두가 주인인 불교텔레비전의 발전을 위해 벼들 한장 쌓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 기 간 : 96. 11. 1 ~ 97. 2. 20

■ 청약방법 : 1구좌 10만원 이상, 지로용지를 이용 전국의 우체국 및 농·수·축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서 접수

■ 청약서 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 각 은행의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분은 지로번호 7614677를 적어 넣으시고 성명과 전화번호 등 잔액수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통장 입금을 원하시면 신한은행 334-05-011307(예금주: 불교텔레비전)의 연결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모동 419 (공포전777) 전화: (02)3270-3300 Fax: 3270-3498

계좌입금 TV설치 문의처
 * 서울지역: 김해방송TV(24구좌) 418-2000, 김해방송TV(25구좌) 418-2115, 김해방송TV(26구좌) 418-2116, 김해방송TV(27구좌) 418-2117, 김해방송TV(28구좌) 418-2118, 김해방송TV(29구좌) 418-2119, 김해방송TV(30구좌) 418-2120, 김해방송TV(31구좌) 418-2121, 김해방송TV(32구좌) 418-2122, 김해방송TV(33구좌) 418-2123, 김해방송TV(34구좌) 418-2124, 김해방송TV(35구좌) 418-2125, 김해방송TV(36구좌) 418-2126, 김해방송TV(37구좌) 418-2127, 김해방송TV(38구좌) 418-2128, 김해방송TV(39구좌) 418-2129, 김해방송TV(40구좌) 418-2130, 김해방송TV(41구좌) 418-2131, 김해방송TV(42구좌) 418-2132, 김해방송TV(43구좌) 418-2133, 김해방송TV(44구좌) 418-2134, 김해방송TV(45구좌) 418-2135, 김해방송TV(46구좌) 418-2136, 김해방송TV(47구좌) 418-2137, 김해방송TV(48구좌) 418-2138, 김해방송TV(49구좌) 418-2139, 김해방송TV(50구좌) 418-2140, 김해방송TV(51구좌) 418-2141, 김해방송TV(52구좌) 418-2142, 김해방송TV(53구좌) 418-2143, 김해방송TV(54구좌) 418-2144, 김해방송TV(55구좌) 418-2145, 김해방송TV(56구좌) 418-2146, 김해방송TV(57구좌) 418-2147, 김해방송TV(58구좌) 418-2148, 김해방송TV(59구좌) 418-2149, 김해방송TV(60구좌) 418-2150, 김해방송TV(61구좌) 418-2151, 김해방송TV(62구좌) 418-2152, 김해방송TV(63구좌) 418-2153, 김해방송TV(64구좌) 418-2154, 김해방송TV(65구좌) 418-2155, 김해방송TV(66구좌) 418-2156, 김해방송TV(67구좌) 418-2157, 김해방송TV(68구좌) 418-2158, 김해방송TV(69구좌) 418-2159, 김해방송TV(70구좌) 418-2160, 김해방송TV(71구좌) 418-2161, 김해방송TV(72구좌) 418-2162, 김해방송TV(73구좌) 418-2163, 김해방송TV(74구좌) 418-2164, 김해방송TV(75구좌) 418-2165, 김해방송TV(76구좌) 418-2166, 김해방송TV(77구좌) 418-2167, 김해방송TV(78구좌) 418-2168, 김해방송TV(79구좌) 418-2169, 김해방송TV(80구좌) 418-2170, 김해방송TV(81구좌) 418-2171, 김해방송TV(82구좌) 418-2172, 김해방송TV(83구좌) 418-2173, 김해방송TV(84구좌) 418-2174, 김해방송TV(85구좌) 418-2175, 김해방송TV(86구좌) 418-2176, 김해방송TV(87구좌) 418-2177, 김해방송TV(88구좌) 418-2178, 김해방송TV(89구좌) 418-2179, 김해방송TV(90구좌) 418-2180, 김해방송TV(91구좌) 418-2181, 김해방송TV(92구좌) 418-2182, 김해방송TV(93구좌) 418-2183, 김해방송TV(94구좌) 418-2184, 김해방송TV(95구좌) 418-2185, 김해방송TV(96구좌) 418-2186, 김해방송TV(97구좌) 418-2187, 김해방송TV(98구좌) 418-2188, 김해방송TV(99구좌) 418-2189, 김해방송TV(100구좌) 418-2190, 김해방송TV(101구좌) 418-2191, 김해방송TV(102구좌) 418-2192, 김해방송TV(103구좌) 418-2193, 김해방송TV(104구좌) 418-2194, 김해방송TV(105구좌) 418-2195, 김해방송TV(106구좌) 418-2196, 김해방송TV(107구좌) 418-2197, 김해방송TV(108구좌) 418-2198, 김해방송TV(109구좌) 418-2199, 김해방송TV(110구좌) 418-2200, 김해방송TV(111구좌) 418-2201, 김해방송TV(112구좌) 418-2202, 김해방송TV(113구좌) 418-2203, 김해방송TV(114구좌) 418-2204, 김해방송TV(115구좌) 418-2205, 김해방송TV(116구좌) 418-2206, 김해방송TV(117구좌) 418-2207, 김해방송TV(118구좌) 418-2208, 김해방송TV(119구좌) 418-2209, 김해방송TV(120구좌) 418-2210, 김해방송TV(121구좌) 418-2211, 김해방송TV(122구좌) 418-2212, 김해방송TV(123구좌) 418-2213, 김해방송TV(124구좌) 418-2214, 김해방송TV(125구좌) 418-2215, 김해방송TV(126구좌) 418-2216, 김해방송TV(127구좌) 418-2217, 김해방송TV(128구좌) 418-2218, 김해방송TV(129구좌) 418-2219, 김해방송TV(130구좌) 418-2220, 김해방송TV(131구좌) 418-2221, 김해방송TV(132구좌) 418-2222, 김해방송TV(133구좌) 418-2223, 김해방송TV(134구좌) 418-2224, 김해방송TV(135구좌) 418-2225, 김해방송TV(136구좌) 418-2226, 김해방송TV(137구좌) 418-2227, 김해방송TV(138구좌) 418-2228, 김해방송TV(139구좌) 418-2229, 김해방송TV(140구좌) 418-2230, 김해방송TV(141구좌) 418-2231, 김해방송TV(142구좌) 418-2232, 김해방송TV(143구좌) 418-2233, 김해방송TV(144구좌) 418-2234, 김해방송TV(145구좌) 418-2235, 김해방송TV(146구좌) 418-2236, 김해방송TV(147구좌) 418-2237, 김해방송TV(148구좌) 418-2238, 김해방송TV(149구좌) 418-2239, 김해방송TV(150구좌) 418-2240, 김해방송TV(151구좌) 418-2241, 김해방송TV(152구좌) 418-2242, 김해방송TV(153구좌) 418-2243, 김해방송TV(154구좌) 418-2244, 김해방송TV(155구좌) 418-2245, 김해방송TV(156구좌) 418-2246, 김해방송TV(157구좌) 418-2247, 김해방송TV(158구좌) 418-2248, 김해방송TV(159구좌) 418-2249, 김해방송TV(160구좌) 418-2250, 김해방송TV(161구좌) 418-2251, 김해방송TV(162구좌) 418-2252, 김해방송TV(163구좌) 418-2253, 김해방송TV(164구좌) 418-2254, 김해방송TV(165구좌) 418-2255, 김해방송TV(166구좌) 418-2256, 김해방송TV(167구좌) 418-2257, 김해방송TV(168구좌) 418-2258, 김해방송TV(169구좌) 418-2259, 김해방송TV(170구좌) 418-2260, 김해방송TV(171구좌) 418-2261, 김해방송TV(172구좌) 418-2262, 김해방송TV(173구좌) 418-2263, 김해방송TV(174구좌) 418-2264, 김해방송TV(175구좌) 418-2265, 김해방송TV(176구좌) 418-2266, 김해방송TV(177구좌) 418-2267, 김해방송TV(178구좌) 418-2268, 김해방송TV(179구좌) 418-2269, 김해방송TV(180구좌) 418-2270, 김해방송TV(181구좌) 418-2271, 김해방송TV(182구좌) 418-2272, 김해방송TV(183구좌) 418-2273, 김해방송TV(184구좌) 418-2274, 김해방송TV(185구좌) 418-2275, 김해방송TV(186구좌) 418-2276, 김해방송TV(187구좌) 418-2277, 김해방송TV(188구좌) 418-2278, 김해방송TV(189구좌) 418-2279, 김해방송TV(190구좌) 418-2280, 김해방송TV(191구좌) 418-2281, 김해방송TV(192구좌) 418-2282, 김해방송TV(193구좌) 418-2283, 김해방송TV(194구좌) 418-2284, 김해방송TV(195구좌) 418-2285, 김해방송TV(196구좌) 418-2286, 김해방송TV(197구좌) 418-2287, 김해방송TV(198구좌) 418-2288, 김해방송TV(199구좌) 418-2289, 김해방송TV(200구좌) 418-2290, 김해방송TV(201구좌) 418-2291, 김해방송TV(202구좌) 418-2292, 김해방송TV(203구좌) 418-2293, 김해방송TV(204구좌) 418-2294, 김해방송TV(205구좌) 418-2295, 김해방송TV(206구좌) 418-2296, 김해방송TV(207구좌) 418-2297, 김해방송TV(208구좌) 418-2298, 김해방송TV(209구좌) 418-2299, 김해방송TV(210구좌) 418-2300, 김해방송TV(211구좌) 418-2301, 김해방송TV(212구좌) 418-2302, 김해방송TV(213구좌) 418-2303, 김해방송TV(214구좌) 418-2304, 김해방송TV(215구좌) 418-2305, 김해방송TV(216구좌) 418-2306, 김해방송TV(217구좌) 418-2307, 김해방송TV(218구좌) 418-2308, 김해방송TV(219구좌) 418-2309, 김해방송TV(220구좌) 418-2310, 김해방송TV(221구좌) 418-2311, 김해방송TV(222구좌) 418-2312, 김해방송TV(223구좌) 418-2313, 김해방송TV(224구좌) 418-2314, 김해방송TV(225구좌) 418-2315, 김해방송TV(226구좌) 418-2316, 김해방송TV(227구좌) 418-2317, 김해방송TV(228구좌) 418-2318, 김해방송TV(229구좌) 418-2319, 김해방송TV(230구좌) 418-2320, 김해방송TV(231구좌) 418-2321, 김해방송TV(232구좌) 418-2322, 김해방송TV(233구좌) 418-2323, 김해방송TV(234구좌) 418-2324, 김해방송TV(235구좌) 418-2325, 김해방송TV(236구좌) 418-2326, 김해방송TV(237구좌) 418-2327, 김해방송TV(238구좌) 418-2328, 김해방송TV(239구좌) 418-2329, 김해방송TV(240구좌) 418-2330, 김해방송TV(241구좌) 418-2331, 김해방송TV(242구좌) 418-2332, 김해방송TV(243구좌) 418-2333, 김해방송TV(244구좌) 418-2334, 김해방송TV(245구좌) 418-2335, 김해방송TV(246구좌) 418-2336, 김해방송TV(247구좌) 418-2337, 김해방송TV(248구좌) 418-2338, 김해방송TV(249구좌) 418-2339, 김해방송TV(250구좌) 418-2340, 김해방송TV(251구좌) 418-2341, 김해방송TV(252구좌) 418-2342, 김해방송TV(253구좌) 418-2343, 김해방송TV(254구좌) 418-2344, 김해방송TV(255구좌) 418-2345, 김해방송TV(256구좌) 418-2346, 김해방송TV(257구좌) 418-2347, 김해방송TV(258구좌) 418-2348, 김해방송TV(259구좌) 418-2349, 김해방송TV(260구좌) 418-2350, 김해방송TV(261구좌) 418-2351, 김해방송TV(262구좌) 418-2352, 김해방송TV(263구좌) 418-2353, 김해방송TV(264구좌) 418-2354, 김해방송TV(265구좌) 418-2355, 김해방송TV(266구좌) 418-2356, 김해방송TV(267구좌) 418-2357, 김해방송TV(268구좌) 418-2358, 김해방송TV(269구좌) 418-2359, 김해방송TV(270구좌) 418-2360, 김해방송TV(271구좌) 418-2361, 김해방송TV(272구좌) 418-2362, 김해방송TV(273구좌) 418-2363, 김해방송TV(274구좌) 418-2364, 김해방송TV(275구좌) 418-2365, 김해방송TV(276구좌) 418-2366, 김해방송TV(277구좌) 418-2367, 김해방송TV(278구좌) 418-2368, 김해방송TV(279구좌) 418-2369, 김해방송TV(280구좌) 418-2370, 김해방송TV(281구좌) 418-2371, 김해방송TV(282구좌) 418-2372, 김해방송TV(283구좌) 418-2373, 김해방송TV(284구좌) 418-2374, 김해방송TV(285구좌) 418-2375, 김해방송TV(286구좌) 418-2376, 김해방송TV(287구좌) 418-2377, 김해방송TV(288구좌) 418-2378, 김해방송TV(289구좌) 418-2379, 김해방송TV(290구좌) 418-2380, 김해방송TV(291구좌) 418-2381, 김해방송TV(292구좌) 418-2382, 김해방송TV(293구좌) 418-2383, 김해방송TV(294구좌) 418-2384, 김해방송TV(295구좌) 418-2385, 김해방송TV(296구좌) 418-2386, 김해방송TV(297구좌) 418-2387, 김해방송TV(298구좌) 418-2388, 김해방송TV(299구좌) 418-2389, 김해방송TV(300구좌) 418-2390, 김해방송TV(301구좌) 418-2391, 김해방송TV(302구좌) 418-2392, 김해방송TV(303구좌) 418-2393, 김해방송TV(304구좌) 418-2394, 김해방송TV(305구좌) 418-2395, 김해방송TV(306구좌) 418-2396, 김해방송TV(307구좌) 418-2397, 김해방송TV(308구좌) 418-2398, 김해방송TV(309구좌) 418-2399, 김해방송TV(310구좌) 418-2400, 김해방송TV(311구좌) 418-2401, 김해방송TV(312구좌) 418-2402, 김해방송TV(313구좌) 418-2403, 김해방송TV(314구좌) 418-2404, 김해방송TV(315구좌) 418-2405, 김해방송TV(316구좌) 418-2406, 김해방송TV(317구좌) 418-2407, 김해방송TV(318구좌) 418-2408, 김해방송TV(319구좌) 418-2409, 김해방송TV(320구좌) 418-2410, 김해방송TV(321구좌) 418-2411, 김해방송TV(322구좌) 418-2412, 김해방송TV(323구좌) 418-2413, 김해방송TV(324구좌) 418-2414, 김해방송TV(325구좌) 418-2415, 김해방송TV(326구좌) 418-2416, 김해방송TV(327구좌) 418-2417, 김해방송TV(328구좌) 418-2418, 김해방송TV(329구좌) 418-2419, 김해방송TV(330구좌) 418-2420, 김해방송TV(331구좌) 418-2421, 김해방송TV(332구좌) 418-2422, 김해방송TV(333구좌) 418-2423, 김해방송TV(334구좌) 418-2424, 김해방송TV(335구좌) 418-2425, 김해방송TV(336구좌) 418-2426, 김해방송TV(337구좌) 418-2427, 김해방송TV(338구좌) 418-2428, 김해방송TV(339구좌) 418-2429, 김해방송TV(340구좌) 418-2430, 김해방송TV(341구좌) 418-2431, 김해방송TV(342구좌) 418-2432, 김해방송TV(343구좌) 418-2433, 김해방송TV(344구좌) 418-2434, 김해방송TV(345구좌) 418-2435, 김해방송TV(346구좌) 418-2436, 김해방송TV(347구좌) 418-2437, 김해방송TV(348구좌) 418-2438, 김해방송TV(349구좌) 418-2439, 김해방송TV(350구좌) 418-2440, 김해방송TV(351구좌) 418-2441, 김해방송TV(352구좌) 418-2442, 김해방송TV(353구좌) 418-2443, 김해방송TV(354구좌) 418-2444, 김해방송TV(355구좌) 418-2445, 김해방송TV(356구좌) 418-2446, 김해방송TV(357구좌) 418-2447, 김해방송TV(358구좌) 418-2448, 김해방송TV(359구좌) 418-2449, 김해방송TV(360구좌) 418-2450, 김해방송TV(361구좌) 418-2451, 김해방송TV(362구좌) 418-2452, 김해방송TV(363구좌) 418-2453, 김해방송TV(364구좌) 418-2454,